

# 마산 왕거사들 다시 뭉쳤다

### 창립 17주년 맞아 기념법회 열고 재도약 다짐



마산불교거사협회 최홍식 회장이 17주년 기념법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3월 20일 오후 마산 정법사 영축불교대학 법당에서 마산 불교거사협회(회장 최홍식) 창립 17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창립 기념 법회는 1989년 3월 창립한 마산불교거사협회가 오랜만에 마산 지역 내의 인사들을 초대하고 마련한 기념법회로 '마산 거사불교의 재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여서 관심을 모았다.

창립 직후 열렸던 몇 차례의 기념법회 외에는 그동안 개별적인 수행과 수행에 만 머물러왔던 마산불교거사협회가 이날 대중 법석을 마련하자 회원은 물론 마산 지역의 불교계가 거사불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며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이날 법회에는 마산불교거사협회 창

립 당시 마산 정법사 주지를 역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과 정법사 주지 지대 스님, 황철곤 마산시장과 마산시공무원불자회, 금강사비회 등 각 신행단체장들도 함께 했다.

마산불교거사협회가 이날 법회를 열기까지는 고민도 많았다. 애초 마산지역 재가불자들을 모두 초청해 신년하례 법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너무 오래 정제돼왔

### 1·3주 월요일 법회 정례화 "수행·봉사 많이 하겠어요"

던 거사불교의 한계와 현실을 여실히 느끼게 되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각성이 일어났다. 마산불교거사협회 창립 당시의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 이기 시작했다. 다시 17년의 시간을 거슬러 자료를 뒤지고 연회를 다시 정리했다. 그리고 창립 기념법회를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마산 불자들은 마산 거사불교의 힘을 다시금 느꼈다. 창립 당시부터 지안 스님의 지도로 원호 스님의 대승 기신론 해동소를 배우고 1994년부터는 경조부를 만들어 장례봉사 활동을 지속 해왔고, 초파일 행사 등에서 주도적인 역

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 대부분의 회원들이 영축불교대학을 졸업했고, 이제는 아는 불교에서 실천하는 불교를 지향하며 대사회적인 역할 강화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정기법회를 열고 있으며 셋째 주 법회에는 전국의 유명 법사 스님을 초청, 수행하는 거사불교의 분위기를 다지는데 소홀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는 장례봉사 활동에 필요한 공부와 준비를 하는 법회를 보고 있으며, 연 2회 수련법회도 열고 있다.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마산불교거사협회는 당면 과제로 젊은 회원 확보를 꼽았다. 이를 위해 대사회적인 봉사 활동을 강화하고 생동하는 거사불교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향후 참선, 염불, 기도 등의 수행 프로그램도 마련해 일반 불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최홍식 회장은 "수행하는 거사불교의 힘이 마산을 불국토로 만들 수 있도록 마산 지역 젊은 거사 불자들이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055)242-8393

글·사건-천미희 기자

## “생활 속 불교실천 진정한 페미니즘”

### 부산 불교여성개발원,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

올해 초 창립된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지원장 이영숙)이 부산 지역 불교 여성 지도자들을 위한 첫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사건).

불교여성개발원 주관으로 3월 21일 코모도호텔 오륙도홀에서 열린 '부산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에는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이영숙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 김수현 부산지원 부원장 등 50여명의 이사 및 각 사찰 신도회장 등이 함께 했다.



한 생활 속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여성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안이비철신의 경계로부터 벗어나 탐진치를 극복하고 지혜를 쓰면서 가정, 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페미니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를 들은 부산불교계 여성 지도자들은 "수행과 수행에 충실하면서 일상 생활 속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불교여성운동의 기반이 된다는 진 원장의 강의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천미희 기자

불교여성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대사회적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진민자(사)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이 '21세기의 시대정신' 동양사상과 생활문화' 불교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진 원장은 '불교여성운동과 페미니즘' 강연을 통해 '불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 “끝없는 수행으로 뜻 이을 것” 범어사 용성 대중사 추모제

부산 범어사주지 대승는 3월 23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용성대중사 추모제 추모제를 봉행했다.

행장소개, 분향, 종헌 순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제에서 범어사 주지 대승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불교가 배척되던 조선시대와 주권을 잃은 일제침략기를 거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행과 중생을 아끼는 마음이 변함 없었던 스님을 생각하면 지금의 수행생활이 부끄럽기만 하다"며 "하루하루 끝없는 수행으로 스님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용성 스님은 1903년부터 전국제방선원을 돌며 안거에 전념했으며 1911년 서울 대각사를 창건하고 1919년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 대표로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다.

일제침략기에 나라를 지키는 호법불교 운동에 앞장섰으며, 삼장역회를 조직하여 활발한 불경번역사업을 벌이는 등 근세 한국 불교 선진적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은아 기자

### “발심수행장 ‘신심명’ 특강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주지 지현는 3월 30일부터 원호 스님의 발심수행장 특강을 마련한다.

'초발심자경문' '계초심학원론'에 이어 지현 스님의 특강으로 열리는 '발심수행장' 강의는 30일부터 일주일간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열린다. (051)294-9300

또한 정토회 부산법당에서는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신심명, 법성계를 풀어내는 2006년 봄 특별법회를 연다.

의상대사의 법성계와 선불교의 보전으로 중국 선종 제3조 승찬대사 지은 '신심명'의 참뜻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이번 법회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두 차례 열린다. (051)747-9997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 활동 전문화·조직 세분화로 '도약'

###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 2006 정기총회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협회장 김석조)는 3월 22일 부산시동 동백홀에서 200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 정기총회에서는 2005년 업무감사보고, 2006년 사업계획서 심의, 2006년 세입, 세출 예산 심의와 함께 지도위원, 운영위원장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식을 함께 가졌다.

이날 김석조 협회장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다"며 "9월 10주년을 앞두고 초발심으로 돌아가 질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는 창립 10주년을 기해 파라미타 활성화를 위해 지도위원, 각 분야 실장을 임명하고 각 분야 활동을 세분화, 전문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선암사 주지 원범 스님, 모은암 주지 정산 스님 등 4명의 지도위원을 위촉했다.

이 밖에도 하영근(범어사금정불교대학) 씨를 운영위원장으로 강경중(해동중학교) 교장을 연수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청소년 연구실장, 상담실장, 자원봉사실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손기춘 가야고 교사, 이종은 김판중 교사가 우수지도자로 선정돼 총재상 회장을 받았으며 배한욱 파라미타 사무국

장은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편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는 9월 9일 부산 KBS 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 지현 스님 달마도 61점 전시



진해 용운사주지 지현는 3월 21일 부광맹인복지회를 초청, 장애인들을 위한 자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사건).

7년 전부터 1년에 두 차례 장애인들을 초청, 위안잔치를 열고 있는 지현 스님과 한국연예인클럽은 이날도 부광맹인복지회 회원 90여명에게 온천과 점심공양, 공연 등으로 즐거운 한때를 선사했다.

용운사 주지 지현 스님은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은사스님 기일인 5월 24일과 상좌의 기일인 10월 10일마다 근육병 환우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열었다.

특히 이번 자비의 날 행사는 지현 스님의 환갑을 기념하는 회향의 의미를 담고 있어 더욱 의미를 더했으며 지현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 61점을 전시해 관심을 모았다.

부광맹인복지회 이재환 회장은 "지현 스님은 벌써 몇 년째 우리 회원들을 위해 이렇게 좋은 행사를 열어주고 있어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지현 스님은 "밥 한 끼 적게 먹고 아껴서 현연이 닿는 대로 장애우들을 위한 행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불광사 중창불사

### 우리는 타오르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일찍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이요, 이 땅이 원래로 불국토정토임을 선언하고 있는 여기 불광법회, 1974년에 창립된 불광법회는 신도교육, 문서포교, 복지활동 등 전법을 통해 밝고 희망차고 역동적인 반야바라밀 위덕을 불어넣어 온갖 불행과 고난, 장애와 병고, 미혹의 어둠을 타파하고 한국불교의 대중화, 현대화의 기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광사는 창건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큰 법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지에서 찾아오는 재가 구도자들의 운집으로 법회장소가 비좁게 되었고, 각종 계층법회와 소모임 교육과 수행프로그램운영으로 공간 활용을 하기가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러한 모든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며, 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아가기 위해서 중창불사를 발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라옵건대 불광사 중창불사가 모든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불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원만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석 가 모 니불

- 불광 사부대중 일동

